

글쓰기

2019-1학기 워크시트

학과:

학번:

이름:

담당교수: 강유진

글쓰기	글쓰기와 나	날짜:
-----	--------	-----

1. 아래 질문들에 답해 보고 쓸거리와 아이디어를 끌어내 보자.

- ‘글쓰기’라는 단어를 대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은?

- 나는 언제부터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한 것일까, 기억할 수 있는, 내가 쓴 최초의 글은 무엇인가?

- 글쓰기와 관련된 나의 기억과 추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나에게 있어 글쓰기는 과연 어떤 일인가? (즐거운 일/괴로운 일/의무 등)

- 내 글쓰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 장차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어떤 목적과 유형의 글인가?

- 지금의 내가 글을 더 잘 쓰기 위해서는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2. 위 질문에 대한 답을 글감으로 삼아 ‘글쓰기와 나’(가제)에 관한 자유 작문을 완성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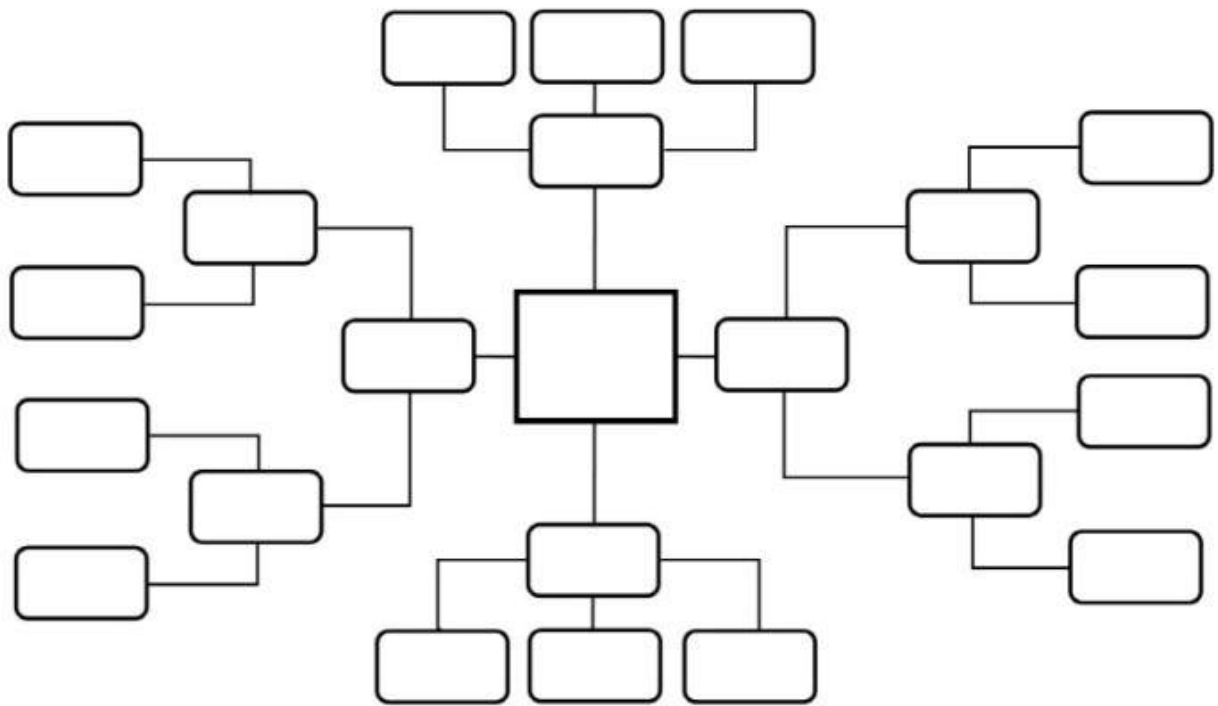
[illegible]

[illegible]

글쓰기	마인드 매핑과 글감 찾기	날짜:
-----	---------------	-----

1. 넓은 테마를 하나 정해서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주제와 소재를 찾아보자.

- ✓ 대학생활
- ✓ 스무 살
- ✓ 나의 미래



2. 선택된 주제와 소재를 적어 보자.

• 소재:	, 주제:
• 소재:	, 주제:
• 소재:	, 주제:
• 소재:	, 주제:

글쓰기	단락 쓰기와 구성	날짜:
-----	-----------	-----

1. 다음 중 하나를 골라 전개적 구성을 활용한 두괄식 글쓰기를 완성해 보자. (세 단락 쓰기)

- ✓ 우리 과 학생회실
- ✓ 학교 오는 길
- ✓ 점심 시간 풍경

제목: 존재적 실존양식

존재적 실존양식은 내면의 긍정적 상태를 드러내는 삶의 총체적 행위이다. 이것은 소유적 실존양식과 대비가 되는 것으로, 그 핵심 요소는 베품과 영속성이다.

베품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주는 경험을 통하여 큰 이상과 가치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소유적 실존양식처럼 잃는 개념이 아니라, 베풀면 베풀수록 가치, 기쁨, 사랑 등의 감정이 쌓여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나 석가모니와 같은 성인은 그 좋은 예다. 그들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소유를 지양하며 남을 위한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가치는 없어지지 않고 후세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속성은 생명이나 재산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불멸의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다. 의미가 변질되고 퇴색될 수 있는 소유적 존재 가치와는 달리 살아있는 감수성을 지닌 느낌과 표현은 변치 않으며 연속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인류가 공통으로 소유하는 언어는 사람들의 전달에 의해 그 의미가 달라진다. 하지만 사랑, 기쁨의 감정은 영원한 것이고 그 느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존재적 실존 양식은 나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하며 나의 개성이 어떠한 소유물에 의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고유성을 띄게 한다. 그러므로 존재적 실존양식의 추구는 보다 풍요로운 삶을 즐기는 길이 된다.

제목: 녹과 쇠

녹과 쇠는 삶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 떼어 뗄 수 없는 관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마음가짐과 대인관계에 있다.

마음가짐은 나의 행동거지를 이끌어 주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 내 인생도 좋은 쪽 혹은 나쁜 쪽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인관계는 나를 되돌아보고 좀 더 성숙하게 해주는 사회활동 중 하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찾기 힘들다. 그만큼 대인관계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 그런 대인관계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며 고쳐나가면서 우리는 보다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녹과 쇠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마음가짐과 대인관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가짐과 대인관계가 그릇될 때 내 몸에는 내 스스로의 몸을 녹이는 녹만 더해갈 것이다.

글쓰기	정의문 쓰기	날짜:
-----	--------	-----

1. 다음 주제 중 하나를 골라 핵심요소를 포함한 확장 정의문을 만들고, 핵심요소를 활용해 3단락 이상의 짧은 글을 작성해 보자. (400자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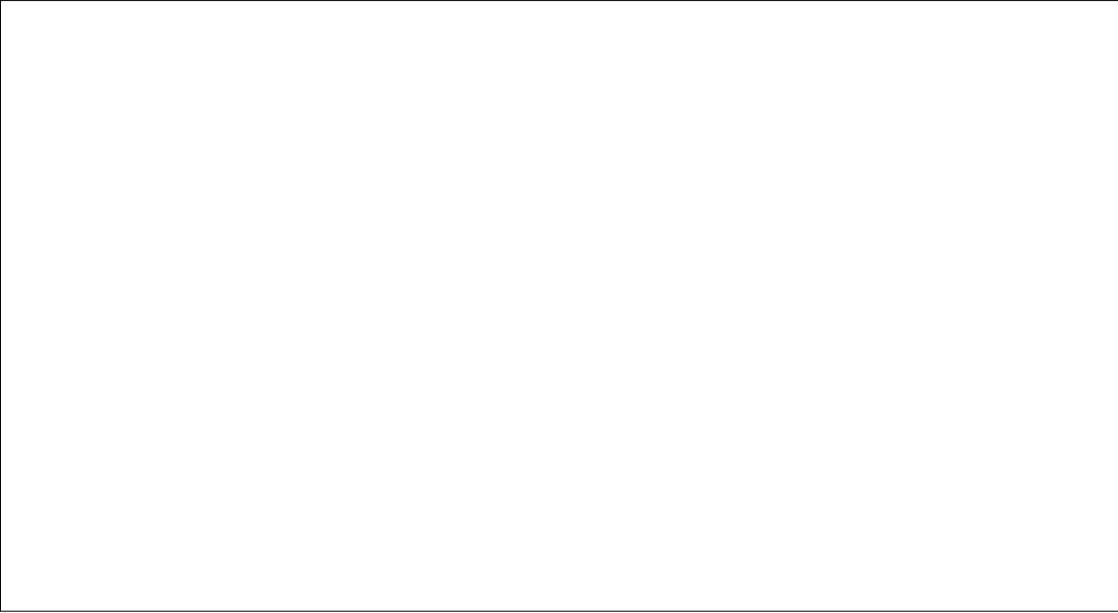
- ✓ 우리 과 학생회실
- ✓ 학교 오는 길
- ✓ 점심 시간 풍경

글쓰기		정의문 쓰기	날짜:
논제:			
논제 파악	사회적 배경		
	논제에 대한 입장		
공유점			
		찬성/반대	
입론	전제		
	핵심 개념		
	논점		
	논거		
	기대 효과		
반론	예상 반론		
	대책		

글쓰기	자기서사 쓰기 과정	이름:
-----	------------	-----

a. 자기서사 쓰기 준비

1. 출생에서 현재까지를 간단한 그래프로 표현해 보자.



2.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보자.

3. 다음의 항목에 답해 보자.

- 내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일은 _____이다.
-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뻐던 일은 _____이다.
-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은 _____이다.
- 내 삶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인물, 단체, 책)은 _____이다.
- 내 인생의 좌우명은 _____이다.

4.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비교해 보자.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b. 개요 짜기

: '자기서사'로 작성할 주제를 정하고 글의 개요를 작성해 보자.

c. '자기서사' 쓰기

: 현재의 ‘나’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하나의 인상적인 사건과 경험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의미화 하는 자기서사 글쓰기를 완성한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blank, lined paper. It features approximately 20 evenly spaced horizontal grey lines across its entire width, providing a template for handwriting practice or general note-taking. The margins are consistent on all sides.

글쓰기	서평 쓰기 과정	이름:
-----	----------	-----

a. 서평 쓰기 준비

1. 최근 3년간 자신이 읽은 책의 목록을 작성한다.
(최근 3년이 아니어도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다면 목록에 따로 추가한다.)

2. 읽은 책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독서 습관을 확인한다.

소설:	자기계발:	인문:
과학:		

3. 서평을 쓸 책을 선정한다.

4. 책에 대한 감상과 의견을 간단히 작성해 보고, 책에 대해 평가해 본다.
(의견과 평가를 구분하되, 평가의 기준은 내용과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정한다.)

감상과 의견:
평가:

5. 의견과 평가를 내포하는 가제목을 설정하고, 서평의 개요를 마련한다.

가제목:
개요:

c. '서평' 쓰기

: 자신의 감상과 의견을 바탕으로 책에 대해 평가하여 서평 쓰기를 완성한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이효리의 디스토피아로부터] 사랑하세요

오늘도 속 없는 김밥을 먹는다. 바쁜 스케줄 사이에 짬을 내어 끼니를 해결할 때, 채식을 하는 내게는 김밥이나 떡볶이 말고 별다른 대안이 없다. 김밥집에 들를 때면 가장 기본적인 원조김밥을 주문하고는 햄과 달걀, 단무지는 빼달라고 한다. 채식을 하는 터라 햄과 달걀은 빼는 것이고, 짜지 않게 먹으려고 단무지까지 빼달라 한다. 어김없이 김밥집 아주머니의 웃음 섞인 편잔이 돌아온다. “그러려면 김밥을 왜 먹누?” 설명하기엔 길고 복잡하기에 그냥 웃음으로 답을 대신하지만 당근 몇개만 송송 박힌 김밥을 먹을라치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진정한 육식광이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등 개고기 빼고는 모든 고기를 다 좋아했다. 머리, 껍데기, 발, 내장 등 부위도 가리지 않고 먹었다. 그러던 내가 김밥 속 햄 한줄까지 발라내고 있는 걸 깨닫는 순간이면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하나 싶지만, 그럴 수밖에 없기에 나 자신을 잘 타이른다. TV에 나와 동물 보호를 외치면서 고기를 먹고 가죽옷을 입는 게 영 찜찜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함께 사는 개와 고양이는 가족처럼 대하면서 거대한 공장식 축산업에 학대당하는 동물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게다가 우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고기를 덜 먹는 게 지구환경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공장식 축산업을 통해 기르는 가축의 트림과 방귀다.

그런 고민에 채식을 시작했는데, 웬걸,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고기의 맛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아주 힘든 결단이 필요했다. 채식주의자는 콩으로 만든 채식주의자용 고기를 먹는다. 인터넷 채식 사이트에 가면 콩고기, 콩소시지, 콩어묵 등 별의별 걸 다 판다. 고기와 맛이 똑같다길래 콩고기를 샀더니...그냥 콩 맛이었다. 혹시나 싶어 돼지불고기 양념에 볶아서 찜을 싸 먹고, 양념치킨 양념에 발라서 맥주와 함께 ‘치맥’인 양 먹어보기도 하고, 콩소시지를 부대찌개에 넣어서 먹어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려놓고서는 돼지불고기 양념에 콩고기를 볶아먹는 내 모습이 참으로 서글프게 느껴졌다. 어차피 이 세상에 고기를 대체할 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고, 그 순간부터 콩고기용 고기를 대신하려는 열망도 끊어낼 수 있었다.

채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건 밥을 먹을 때마다 “왜 채식을 하는 거야?”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욕에 차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요즘은 그냥 “속이 안 좋아요”라거나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대요”처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답으로 간단히 대꾸할 때가 많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배려가 점점 많아진다. 요즘은 화보를 찍을 때도 채식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한국 채식주의자들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곤 한다. 그 때문에 나 역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더 자주 채식을 이야기하고, 실생활에서도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진다.

물론 여전히 그리운 것들이 있다. 아직도 멋진 가죽 재킷은 쿨해 보인다.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구워 먹던 막창이 그리워도 하다. 하지만 채식은 음식 습관을 넘어서서 처음으로 지켜보고 싶은 나와 의 약속이 됐다. 나를 위해, 동물을 위해, (좀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지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이 채식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채식은 엄격한 규칙이나 딱딱한 철학이 아니다. 채식은 사랑이다.

[김선우의 디스토피아로부터] 햇살의 바디감 그리고,

가을별이 좋다. 커피나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바디감’이라는 말을 빌리자면, 바디감은 가을별이 단연 최고다(영어 조합어인 바디감이라는 말에 딱 맞춘 우리말을 아직 못 찾았다. ‘밀도감×중량감’의 총체인 이 말과 적절히 바꿀 우리말이 있으면 누가좀 알려주시길). 아무튼, 계절마다 달라지는 햇살의 바디감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사계절이 있는 땅에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꽤 좋은 쾌락 중 하나라고 나는 생각하는 편.

‘햇살의 바디감’ 운운하며 마음 어딘가 간질거리는 걸 보니 가을이긴 한가보다. 며칠 전 후배에게서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다. “언니, 저 가을 타나 봐요. 썬썬해요 으형~.” 나는 이렇게 답문자를 보냈다. “반가운 소리! 잘 살아 있다는 증거. 가을은 타줘야 맞이지.” 후배의 답, “글쎄~ 다행이닷. 썬썬해서 아고라 서명하고 왔어요. 칭찬해주삼”. 나의 답, “무슨?” 후배 왈,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요”. 그리고 보니 그 후배는 몇년 전 백수생활을 청산하고 ‘비정규직 직장인’이 된 뒤 투표시간이 빠듯해 참정권 행사도 어렵다고 투덜대곤 했다. “멋지다! 그대의 아름다움의 비결이 가을 타는 데 있었구나!!” 느낌표를 두개나 찍어 답 문자를 보내놓고 나도 얼른 서명하러 갔다.

최근 이슈 중 내게 가장 유쾌한 것이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것이다. 맞아! 투표권을 행사하는 다수의 요구에 따라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태 왜 못했지? ‘6시 땡’ 투표시간을 하늘에서 정해준 것처럼 받들어 모셔야 할 이유가 대체 뭐야? 위에서 뭔가 정해지면 웬만하면 그냥 따라가는 데 익숙한 정서, 상명하복의 희한한 복종체계가 마음까지 지배해버렸기 때문일까. 명색이 예술가인 나는 왜 좀더 일찍 이런 문제제기를 못했는지 조금 부끄러웠다. 질 좋은 자유를 위해선 다른 상상이 필요해. 요구하자고! 우리 가능한 시간에 투표할 권리!

‘썬썬해서 서명하고 왔다’는 마음의 무늬가 잘 보이는 가을이다. 가을 타는 마음과 참정권의 질을 높이는 일 사이가 그리 멀지 않다는 걸 불현듯 깨닫는다. 가을을 타자. 가을 탈 여유도 없이 일상의 쳇바퀴에 굴복해 살아가기엔 인생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스스로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선 상상력의 틈새가 필요하다. 썬썬해서 서명하고, 기뻐서 기부하고, 분노해서 포옹하는! 살벌한 바리케이드 앞에서 뜨겁게 키스하는 연인들이 68혁명의 상상력을 맘껏 고양시켰듯이, 그런 파격의 틈새를 스스로의 일상에 많이 허락하며 살아야 하는 가을이다.

아 참, ‘썬썬해서 함께 걷는’ 사람들 이야기도 전해야겠다. 제주도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기도하며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생명 평화 대행진’을 찾아보시라. 이 아름다운 순례의 행렬이 내가 사는 지역에 가까워질 때 ‘썬썬해서 밥 한끼’ 함께 먹어도 좋을라. 썬썬해서 풍성해지는 가을이 왔다. 가을을 타자.

<살며 생각하며> '백주부' 백종원에 열광? 맛벌이엄마 사랑 결핍 때문

황교익 / 맛칼럼니스트

"백종원 씨는 전형적인 외식 사업가다. 그가 보여주는 음식은 모두 외식업소 레시피를 따른 것이다.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드는 건 쉽다. 백종원 식당의 음식은 다 그 정도다. 맛있는 음식은 아니다."

백종원의 음식에 대해 평가해 달라 하여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백종원을 "깼다" "디스했다"는 말을 붙인다. 그를 까고, 디스할 이유가 있겠는가. 직업상 관찰하고 평가했을 뿐이다. 이 원고를 보낸 후 백종원 씨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다. 내 일과 뜻을 알아준 백종원 씨에게 감사한다. 이 글도 그렇다.

백종원은 스스로 외식 사업가라고 한다. 외식 브랜드만 30여 개다. 그러니 '전형적 외식 사업가' 맞다. 그의 레시피가 외식업소의 것이란 사실도 방송에서 "이건 우리 가게 비밀인데" 같은 말로 스스로 밝힌다. 이 레시피의 음식을 두고 "먹을 만한 음식"이지 "맛있는 음식이 아니다"고 한 것도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은 다 알아듣는다. 단맛을 중심으로 하여 적당히 밸런스를 맞춘 양념을 바르면 그 어떤 것이든 먹을 만해진다. 백종원의 음식을 맛있는 음식으로 평가할 수 없는 까닭을 그의 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방송에서 외식업소의 성공 비결은 '맛이 30, 분위기 70'이라 했고, 좋은 식재료를 사겠다고 새벽시장에 갈 필요는 없다고 했다. 외식업 운영 요령으로 보자면 그의 말이 다 맞다. 그는 훌륭한 외식 사업가다.

백종원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해서 인터뷰의 내용이 거기에 머물렀지,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백종원이 아니라 백종원에게 열광하는 대중이다. 백종원 얼굴 아래 뽕뽕 뽕뽕 뜨는 이모티콘의 대중 말이다.

"맛있는 음식의 수는 이 세상 어머니의 수와 같다." 누군가 맛을 부려 만든 말인데, 단순히 줄이면 "엄마의 음식은 무조건 맛있다"이다. 이때에 엄마란 각자의 엄마다. 남의 엄마가 해준 음식은 무조건 맛있지 않다. 내 엄마의 음식이 내 입에는 늘 딱 맞다.

인간은 포유동물이다. 태어나면 얼마간 어미의 품에서 자란다. 젖먹이 이후에 어미는 젖먹이 때의 친밀감을 유지하며 자식의 입에 음식을 밀어 넣는다. 이게 맛있는 음식이다. 이걸 먹어야 건강하다, 이건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담아 어미가 먹인다. 독립해 혼자 먹이 활동을 할 때에 엉뚱한 것을 먹고 죽거나 탈 나면 안 되니 그렇게 챙겨 먹이는 것으로 입맛 교육을 하는 것이다. 포근한 어미의 품에서 사랑스러운 어미의 눈길을 받으며 먹는 음식은, 자식에게는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으로 각인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엄마의 음식을 맛있다 하고, 평생을 엄마의 음식 같은 음식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다.

방송에서 백종원을 '백주부'라고 한다. 집안에서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주부다. 주부는 대체로 엄마다. 백주부를 '백종원 엄마'라고 풀면 백종원에 대한 대중의 열광이 어디서 비롯했는지 알 수 있다. 대중이 백종원을 통해 얻으려는 건 엄마의 음식, 엄마의 사랑, 그렇다, 엄마다.

백종원에게 열광하는 이들 중 1980~1990년대생이 많다. 결혼 여부와 관련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다. 공부며 일에 바쁘고, 1인 가구 등으로 구성원이 단출하니 밥을 해서 먹는 게 귀찮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이 백종원에게 열광하는 까닭을 "쉽게 요리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쉽게 요리하는 비법은 이미 인터넷에 지천으로 널려 있다. 만능 양념장 같은 것은 그 다양한 레시피가 방송으로도 자주 소개됐다. 1990년대 이후 출간된 요리책도 '초간단'을 콘셉트로 내세운 것이 부지기수다. 백종원에 대한 열광은 요리 비법 따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다.

열광은 결핍의 산물이다. 결핍돼 있으니 무엇인가 집착하는 것이다. 1980~1990년대생에게 발견되는 결핍은 엄마다. 엄마의 사랑이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에 한국은 고도 자본주의 사회로 막 진입했다. 대가족은 핵가족으로 해체되고 결혼한 여자가 바깥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맛벌이가 일상화했다. 1980~1990년대생은 한국 맛벌이 부부의 1호 자식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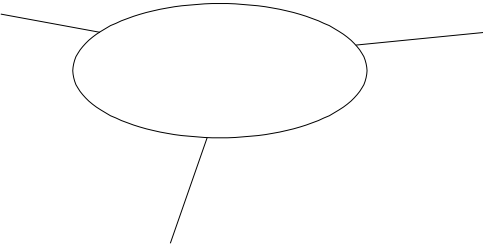
바깥일을 하니 엄마는 늘 바빴다. 아침은 토스트와 콘플레이크로 대충 때우고 부부는 각자의 일터로, 아이는 어린이방으로 가야 했다. 젓 떼고 먹는 게 보육교사의 음식이었다. 저녁이면 엄마는 지쳐 있었다. 피자, 햄버거, 치킨. 전화 한 통이면! 그러니, 엄마의 음식을 받아먹은 기억이 없다. 엄마의 사랑을 받아먹은 기억이 없다. 어떤 음식을 맛있다 하고 기준을 잡을 것인지 몸의 기억으로 각인할 기회가 없었다.

이들에게 텔레비전의 백종원은 '대체 엄마'이다. 맛벌이로 바빠 내게 요리 한 번 가르쳐준 적이 없는 엄마와 달리 부엌의 온갖 인스턴트 재료로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그러듯 약간 귀찮은 표정으로 켜 체하며 비법을 날린다. 넉넉한 엄마의 마음으로 시청자의 투정을 받아준다. 어떤 때에는 우리 엄마처럼 진짜로 살짝 빠치기까지 한다. 뒤늦게, 백종원의 음식이 엄마의 음식으로 각인된다.

'백종원 엄마'의 음식을 두고 내가 "맛없다" 했으니 화가 날 만도 할 것이다. 이럴 바에야, 진짜 엄마한테 진짜 엄마 손맛을 배우면 어떨까. 엄마도 그때에 맛벌이하느라 사랑을 듬뿍 주지 못한 것에 마음 한구석이 늘 짠할 것이다.

글쓰기	칼럼/비평문 쓰기 과정	날짜:
-----	--------------	-----

1. 자신의 최근 관심사를 분야별로 나누어 마인드맵을 작성한다.



A large rectangular box containing a mind map template. The template consists of a central horizontal oval with three lines extending from its perimeter: one to the left, one to the right, and one downwards. The rest of the box is empty space for writing.

2.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서 관심사에 관한 기사를 찾아 읽고 목록을 작성한다.

[illegible]

3. 관련 기사를 읽고 난 후, 제재를 정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
제문을 작성해 본다.

4. 문장 카드 방식을 활용하여 개요의 각 항목을 정하고, 이를 단락으로 구성해 보자.

[illegible]

5. ‘칼럼/비평문’ 쓰기

: 위의 준비 절차를 구체화 하여 한 편의 칼럼/비평문을 완성한다.

[illegible]

글쓰기	그룹 피드백	글쓴이:
-----	--------	------

평가자 (학과/이름)	피드백 및 평가	
	수정사항	
	평가	
	수정사항	
	평가	
	수정사항	
	평가	
	수정사항	
	평가	
	수정사항	
	평가	

학술정보원 이용과 보고서 쓰기 실습

날짜: _____

연구주 제			
키워드			
영문 키워드			
자료형 태	NO	서 지 사 항 (저자, 논문제목, 출판사 또는 학술지명, 권,호, 연도, 페이지)	소장/제공처 (사이트, 대학명)
단행본	1	홍길동,『신규사업성공 노하우』, 중앙대학교 학술원, 2006.	중앙대도서관
	2		
	3		
	4		
	5		
학위 논문	1	홍길동,「기업내 창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중앙대도서관
	2		
	3		
	4		
	5		
	6		
	7		
아티클/ 소논문	1	홍길동, 「신규사업성공과 기업내 창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중앙경영 경제연구』 26권, 중앙경제연구회, 2006, 427~462쪽.	RISS
	2		
	3		
	4		
	5		